

## 강제취업과 복지수급 대상자들의 육아 스트레스

김 은 정\*

## I. 서 론

미국의 1996년 복지개혁으로 인해 실행된 “개인책임과 노동기회조정법(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이하 PRWORA)”은 이전까지 부양 자녀가 있는 비취업 편모들에 보장해 주었던 정부의 현금보장 프로그램인 AFDC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를 일시적 현금보조 프로그램인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로 대체하였다. TANF는 취업을 근거로 한 시간제한적인 복지 프로그램으로서, 이 제도에 따르면 복지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며 복지수급 가능 기간은 전 생애에 걸쳐 5년으로 제한된다.

복지체계의 이와 같은 큰 변화는 수백만의 빈곤 가족과 그 구성원들의 삶에 잠재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복지개혁의 가능한 영향들을 분석해왔다. 그러나 복지개혁을 평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존 복지 수급자들의 취업률, 취업기간, 취업 장애 요인들과 같은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Brauner & Loprest, 1999a; Cancian & Meyer, 2000; Corcoran et al., 2000; Moffit & Roff, 2000; Zedlewski & Alderson, 2001b), 복지수급 편모들의 비경제적 복지상태, 특히 그들의 부모로서의 심리적 복지와 같은 측면은 거의 연구되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지금까지의 빈곤 편모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정책이 그들의 경제적 부양 자로서의 역할을 부모역할에 비해 훨씬 더 강조해왔다는 것을 반영해준다. 사실상 20세기 중반이후 미국의 빈곤 편모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은 편모의 임금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일차적으로 강조해왔으며(Goodwin, 1995; Mink, 1998), 이로 인해 학문의 영역에서나 실제 복지정책 영역에서나 빈곤 편모들이 가지는 부모로서의 다양한 문제들은 간과되어 왔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가진 편모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이들은 경제적 부양자 역할보다는, 자녀에게 직접적 보살핌과 애정적 지지를 제공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더 중요시 하며(Olson & Banyard, 1993; Polit, Widom, Edin, Bowie, London, Scott, & Valenzuela, 2001; Seccombe, 1999; Scott et al., 2001), 적절한 부모역할 수행에 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자원의 부

\* 상지대학교 강사

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고하고 있다. 편모들의 부모로서의 역할수행과 관련된 이러한 어려움은 복지개혁 이후 더욱 커졌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TANF 프로그램 실시와 함께 미국의 대부분의 주정부가 자녀가 한살이 되기 전부터 빈곤 편모들에게 강제취업 규정을 적용시키기 때문이다(Zedlewski & Alderson, 2001a). 따라서 최근의 복지개혁과 취업을 전제로 하는 복지제공 프로그램(Welfare-to-Work Program)을 프로그램 수급자들의 입장에서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취업률이나 취업안정성과 같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나 우울증, 생활만족도와 같은 다양한 심리적 복지의 변화를 고찰해야만 할 것이다.

강제적 취업의 영향력을 파악함에 있어서 저임금 노동의 특성을 고려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취업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취업의 여러 가지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이다. 취업의 다양한 특성들 중에서 근무스케줄의 비용통성은 저임금 노동의 주요한 특성일 뿐 아니라 편모들의 부모역할 수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특히 복지개혁으로 인해 빈곤 편모들이 강제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근무스케줄 비용통성이 그들의 육아 스트레스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또한 일반적으로 대체 타일을 위한 재정적,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빈곤 편모들이 아주 어린 자녀를 둔 경우에 더욱 심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주 어린 자녀(1세)를 부양하고 있으면서 강제적 취업규정하에 있는 빈곤 편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근무스케줄의 비용통성으로 인한 문제와 그들의 육아 스트레스간의 관련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II. 빈곤 편모와 사회복지 정책

부양자녀를 둔 빈곤 편모에 대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던 20세기 초에는 어머니의 주된 책임이 경제적인 가계부양자 역할이 아니라 자녀돌보기 역할이라는 것이 당연시되었다(Goodwin, 1995). 그 당시에는 편모를 위한 공공부조가 어머니됨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빈곤편모들이 자녀돌보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빈곤가계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도 유익한 일로 간주되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어머니를 위한 연금(Mothers' Pension)"이 피부양자녀를 둔 빈곤한 어머니들에게 큰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였다.

"어머니를 위한 연금" 프로그램들은 1935년의 Social Security Act(SSA)에 의해 제정된 최초의 연방 공공부조 프로그램이었던 Aid to Dependent Children(ADC)의 모델이 되었다. SSA는 미국내 요보호대상자들에게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들을 제도화한 첫 번째 법으로서, 다른 요보호 대상자들-노인, 맹인, 그리고 (1950년대 후반 포함된) 장애인-과 함께 피부양 자녀를 둔 빈곤 편모들도 공공부조 수급자격을 가진 인구에 포함되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 이러한 유형의 복지체계가 미국 복지체계의 근간을 이루었다(Gilbert & Terrell, 1998).

이러한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72년의 SSA 수정법안이었다. 수정 SSA 법안은 맹인, 장애인, 그리고 노인을 위한 공공 부조프로그램을 Supplementary Security Income(SSI)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였다(DiNitto, 2000). SSI 에 포함되는 프로그램들은 연방정부의 통제하여 놓여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요보호 대상자들에게 단일한 체계의 현물서비스가 주어졌으나, 앞서의 공공부조 프로그램 중 AFDC 프로그램만이 이 연방화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다(Gilbert & Terrell, 1998). 사실상 AFDC-1962년 ADC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AFDC로 이름을 바꿈에 대해서는 196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존립여부 및 수급범위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다. 이는 이 시기에 이혼가정과 혼외자녀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프로그램 운영상의 비용이 너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AFDC가 연방화 과정에서 제외된 부분적 이유이다.

사실상, 1960년대 이후 피부양 자녀를 둔 빈곤 편모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편모가 그들의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최우선 책임자라는 사실을 강조해왔는데(Blank & Blum, 1997), AFDC 수급자들이 시장노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해야한다는 사회적 담론이 성문화되어 나타난 것이 1996년 PRWORA 법이다(Broughton, 2001). 간단히 말하면, 1996년 복지개혁은 연방국가가 피부양자녀를 가진 요부양 빈곤 부모들로부터 공공부조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TANF 정책들의 가능한 영향력에 관한 경험적 증거들에 따르면 “공공부조 수급자들의 수가 크게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TANF의 시간제한법이며, 이 시간제한은 어린 자녀를 가진 가족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Bloom et al, 2002, p. ES 7)고 한다. 몇몇 주들이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의무”라는 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부모들에 대한 강제적 취업규정을 면제해주기도 하지만 그 면제기간은 상당히 짧으며, 그 기간이 지속적으로 더 짧아지고 있다.

면제기간이 더욱 짧아지는 이러한 경향과 관련하여 1996 복지개혁에 대한 중요한 비판 중의 하나는 저소득 편모들에게 이용가능한 직업의 근로조건 문제와 관련된다. 사실상 열악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자원투자가 없이 단지 빈곤 편모들에게 취업만을 강제할 경우, 취업이 빈곤 편모에게 구성된 전체의 복지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빈곤 편모들은 취업이 주는 잠재적 이익이 그것의 예측되는 비용보다 조금이라도 크다면 취업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한다(Connolly, 2000; Edin & Lein, 1997; Seccombe, 1999). 따라서 취업을 전제로 한 복지제공 프로그램(welfare-to-work programs)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취업규정만을 강화시키기 보다는 취업의 잠재적 비용은 낮추고 이익은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육아를 도울 수 있는 대체적 자원이 부족한 빈곤 편모들에게 있어서 근무스케줄의 융통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취업의 잠재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 III. 빈곤 편모의 육아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

미국사회에서 빈곤 편모의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은 충분히 논의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인정받지 못하였다(Oliker, 2002). 취업과 부모역할 수행과 관련된 중전의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중산층 주부들의 일-가정 간의 역할갈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Bird, 1997; Copeland, 1999; Rogers & White, 1998; Voydanoff, 2002; Zaslow et al., 1999). 중산층 주부들은 부모역할 수행에 필요한 자원들의 양과 질 그리고 취업으로부터의 잠재적 이익의 견지에서 빈곤 편모들에 비해 훨씬 좋은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중산층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이상의 연구들은 빈곤 편모들의 상황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그 유용성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빈곤 편모의 육아에 초점을 맞춘 소수의 경험적 연구들도 대개 편모 자신들의 복지보다는 자녀들의 복지나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Mink, 1998).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많은 연구들이 편모의 육아 스트레스보다는,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편모의 자녀양육 유형이나 태도 등을 주요 변수로 하였다(Bank et al., 1993; Blueston & Tamis-Lemonda, 1999; Jackson, Brooks-Gunn, Huang, & Glassman, 2000; Klebanov, Brooks-Gunn, & Duncan, 1994). 같은 맥락에서, 편모의 육아 스트레스를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들도 편모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육아 스트레스를 간주하기 보다는 그러한 스트레스가 부적절한 자녀양육 행동이나 태도, 더 나아가 자녀의 발달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주로 다루고 있다(Ohlson, 2001; Smith, Brooks-Gunn, Kohen, & McCarton, 2001; Voydanoff & Donnelly, 1998).

부모역할수행 스트레스를 최종변수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매개변수로만 봄으로서 그 중요성을 평가절하 하는 이러한 경향은, 저소득층 어머니들의 취업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어머니 자신의 복지보다는 자녀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최근의 복지개혁과 관련하여 빈곤 계층의 어린이들의 복지도 공공정책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여전히 있다(Duncan & Chase-Lansdale, 2001을 보라)].

복지를 수급하는 어머니들의 취업이 자녀의 행동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최근의 연구(Kalil et al., 2001)를 보면, 이들의 취업은 자녀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육아 스트레스만이 자녀의 문제행동-특히 반사회적 행동-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Jackson et al.(2000)은 취학 전 자녀를 둔 흑인 편모들의 저소득 취업이 그들의 심리적 스트레스, 훈육, 그리고 자녀의 발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Jackson et al.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취업이 어머니들 자신의 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육아 스트레스가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ger, Elder, Lorenz, Simons, and Whitbeck(1992)의 연구도 어머니의 직업적 특성이 그들의 부모로서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단지 육아 스트레스가 그 가계의 재정적 압박과 사춘기자녀의 부적응을 매개하는 매개요소로서 기능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Jackson 외의 연구와 Conger 외의 연구들의 결과는 어머니의 정서적 스트레스가

육아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것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유의미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Raver(2001)도 Head Start 프로그램에 자녀를 등록시킨 저임금 어머니들의 취업, 정신건강상 문제들, 그리고 육아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앞선 연구들의 결과와는 달리 Raver는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 정신건강상의 문제와 부적절한 훈육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Raver는 또한 어머니의 취업이 빈곤 가계의 재정적 압박을 완화시키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1-3세 사이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규모의 연구에서 Belsky와 Eggebeen(1991)은 어머니의 취업이 어린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Ohlson(2001)은 어머니의 취업이 부모의 훈육내용이나 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복지 개혁의 맥락 내에서 Ohlson은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다양한 스트레스와 훈육행동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취업한 어머니들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고하였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사용하였다.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어머니의 취업이 그들의 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조사한 연구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우울증상을 최종 산출변수로 보았으며 (Hock & DeMeis, 1994; Hoffman & Youngblade, 1999; Lennon, 1994를 보라), 저소득층 주부의 육아 스트레스를 산출변수로 본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Mockler(1990)의 연구가 이러한 제한적 연구 중에서 대표적인 연구이다. Mockler는 빈곤 편모의 육아 스트레스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연구하였는데, 탁아서비스, 주거만족도, 그리고 이웃의 안전도 등이 스트레스 수준과 유의미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Howard(200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취업과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그리고 부모로서의 심리적 복지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어머니들의 취업지위-시간제 혹은 전일제 근무, 근무시간-은 육아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었으나 근무조건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개혁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 Howard(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근무조건은 복지수급 어머니들의 다양한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본 연구는 다양한 근무조건들 중 특히 근무스케줄의 융통성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 편모의 육아스트레스를 분석하고자 한다. 근무시간의 비융통성 문제란 취업이 자녀돌보거나 그 밖의 가정활동 등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나 제한하는지를 의미한다(Galambos & Walters, 1992).

## IV. 연구방법

### 1. 연구자료

편모의 취업과 육아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The Fragile Families and Child Wellbeing Study(이하 FF Study)”로부터의 자료를 이용한다. FF Study는 편모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1998년부터 시작된 전국규모의 종단연구이다. FF Study는 자녀출산시기에 있는 부모들-특히 편부모 (75%)-과 그들의 자녀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 종단연구로서, 전 미국인구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FF Study는 5년에 걸쳐 이러한 집단을 종단연구함으로써 이들의 가족생활이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녀의 다양한 차원의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기초조사는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미국의 20개 도시에 걸쳐서 4,898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기초조사는 자녀출산 24시간 후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기초조사 질문지는 부부관계, 결혼이나 성역할에 대한 가치나 태도, 건강, 가족이나 친족의 도움, 이웃의 특성, 복지정책이나 지역사회 자원들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밖의 광범위한 사회인구학적 정보들을 포함하였다. 1차 추가 인터뷰는 자녀가 한살이 되었을 때 실시되었으며, 추가 인터뷰 성공률은 어머니의 경우 89%, 아버지의 경우 76%였다. 추가 인터뷰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이용성, 배우자와의 갈등이나 가정폭력, 정신건강상의 문제, 다양한 사회적 지원 망, 육아 스트레스, 자녀의 건강 및 발달상의 문제 등과 같은 부가적인 정보를 포함하였다. 전국 규모의 자료들 중에서 편모의 부모역할 수행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FF Study가 제공하는 자료들은 편모의 부모역할수행 관련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광범위한 잠재변수들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예외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과 전진 모델링(progressive modeling, Mirowsky, 1999)을 이용해서 근무스케줄 비용통성 문제와 육아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전진 모델링이란 첫단계에서 근무스케줄의 비용통성 문제와 육아 스트레스간의 관계만을 포함하는 기본모델의 모수 추정치가 제시되고, 다음 단계들에서 관련변수집단을 포함하는 일련의 후속 모델들이 추가되는 방법이다. 후속모델들은 관련변수들이 근무스케줄의 비용통성 문제와 육아스트레스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전진 모델링 분석은 근무스케줄의 비용통성 문제가 육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각 변수의 집단별로 취업이 육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게 해준다.

또한 본 연구는 근무스케줄의 비용통성이 복지수급 편모의 육아 스트레스와 복지수급의 경험이 없는 편모의 스트레스에 어떤 상이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분리분석(separate analysis)을 실시할 것이다. 복지수급 편모의 근무스케줄 비용통성 문제와 육아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복지수급 경험이 없는 편모들을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비교한다.

### 3. 관련변수

#### 가족 배경변수

본 연구는 가족의 빈곤수준, 편모의 자녀아버지와의 관계, 탁아서비스의 이용, 사회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능성의 정도, 자녀수를 가족배경변수로 포함시킨다. 이상의 요인들은 어머니들의 취업결정 및 이에 따른 어머니들의 일-가정 역할갈등에 영향을 준다고 여겨지는 요인들이다(Ostberg & Hagekull, 2000; Ostberg, Hagekull, & Wettergren, 1997의 연구를 보라). 빈곤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소득 대 빈곤 비율(income-to-poverty ratio)을 빈곤정도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변수로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탁아서비스와 관련된 요인들로는 탁아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과 대안적 탁아서비스를 필요로 했던 횟수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또한 빈곤편모의 경우 다양한 원천으로부터의 사회적 도움들은 취업을 용이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친구나 친지로부터의 재정적 도움, 주거관련 도움, 탁아관련 도움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편모의 부모역할수행 스트레스가 그들의 자녀아버지와의 관계의 유형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파트너로부터의 도움은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는데(Mathiesen et al., 1999), 편모의 자녀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들의 부모역할수행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Osborne, 2002). 마지막으로, 자녀의 수는 자녀돌보기에 사용되는 일의 양이나 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편모의 개인적 특성변수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과 육아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혼동시킨다고(confounding) 보고된 바 있는 어머니 개인의 특성변수들 중 인종, 연령, 교육, 성역할 지향성을 고려하였다. 첫째, 인종은 저임금 편모의 취업과 그들의 복지를 연구할 때 특히 중요한 변수이다. 빈곤편모는 인종적 소수집단에 집중되어 있는데, 인종적 소수집단은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정도의 급여를 제공하는 직업을 갖거나 그 직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복합적인 장애요인들을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Edin & Lein, 1997; DiNitto, 2000). 본 연구는 또한 어머니의 연령을 분석에 포함시킨다. 어머니의 연령이 취업과 육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가 불일치하지만, 어머니의 연령이 자녀돌보기와 관련된 만성적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기술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일관적으로 보고된다(Ostberg & Hagekull, 2000; Ostberg et al., 1997). 또한 본 연구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주요한 개인특성변수로 포함시켰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취업가능성과 자기부양력(self-support)에 큰 영향을 준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Hastings-Storer, 1991). 한편, 어머니들의 성역할에 대한 정체성도 그들의 부모로서의 스트레스 및 취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어머니됨 그리고 자녀돌보기에 대한 개인적 가치부여는 어머니들의 육아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특히 어머니들이 “좋은 어머니”에 대한 그들의 가치나 신념과 갈등하는 상황에 처해있을 때 더욱 그러하다고 한다(Sabatelli & Waldron, 1995).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성역할 정체감을 중요한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 자녀의 특성변수

본 연구는 자녀의 성별, 건강상태, 기질적 어려움을 어머니의 육아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녀의 주요 특성변수로 포함시켰다(Ostberg & Hagekull, 2000; Ostberg et al., 1997을 보라). 자녀의 성별은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육아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다(Jackson, 1998; Jackson et al., 2000). 또한 본 연구는 1살의 영아를 가진 어머니들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영아들의 경우 건강문제나 기질적 어려움이 부모의 자녀돌보기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건강과 기질적 어려움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 4. 변수의 정의

- 종속변수: 육아스트레스- 다음 4 문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일치하는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부모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다/ 나는 부모로서의 의무들에 얽매어 살고 있다/ 자녀를 돌보는 일은 행복하기보다는 고통스러운 일이다/ 가족들을 돌보는 일 때문에 종종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듯하다.
- 비용통제 근무스케줄로 인한 문제- 다음의 2 문장을 통해 3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근무스케줄이 융통적이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 있는 동안 자녀를 돌보는 일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가족내에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들을 조정하기에는 내 근무스케줄의 융통성이 부족하다.

### 1) 가족 배경변수

- 빈곤수준- 소득대 빈곤의 비율로 측정하여 다음의 3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소득대 빈곤비율이 200%이상인 가족/ 소득대 빈곤비율이 100-199%인 가족/ 소득대 빈곤비율이 99%이하



인 가족.

- 자녀 아버지와와의 관계- 다음의 3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동거관계/방문관계/무관계.
- 탁아서비스의 이용- 다음의 두 변수를 포함한다: 하루 중 탁아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 한 달 동안 계획했던 탁아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여 급히 다른 탁아서비스를 찾아야만 했던 횟수.
- 사회적 지원에 대한 기대- 다음의 3 변수를 각각 측정하였다: 필요할 때 친구나 친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지의 여부/ 필요할 때 친구가 친지로부터 살 곳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필요할 때 친구나 친지로부터 탁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자녀수- 함께 살고 있는 총 자녀수

## 2) 편모의 개인적 특성변수

- 인종- 다음의 3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비히스패닉계 백인/ 비히스패닉계 흑인/ 기타 인종.
- 교육수준- 교육받은 기간으로 측정하여 다음의 3집단으로 분류하였다: 0-8년/ 9-11년/ 12년 이상.
- 연령- 연령을 다음의 3집단으로 분류하였다: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 전통적 성역할 지향성- 다음의 3문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일치하는 정도를 3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가족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남자가 내려야만 한다/ 부부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함께 살아야만 한다/ 남자가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여자는 취업하지 않고 집에서 자녀를 기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자녀의 특성

- 성별-여아/남아
- 건강상태- 자녀의 건강상태에 대한 어머니들의 평가를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건강이 최적상태/ 최적이하.
- 기질적 어려움- 다음의 5문장을 이용하여 자녀의 기질적 어려움의 정도에 대한 어머니들의 평가를 4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아이가 너무 수줍음을 탄다/ 아이가 비사교적이다/ 아이가 쉽게 울거나 화를 낸다/ 아이가 울거나 화를 낼 때 다루기가 어렵다/ 아이가 다정다감하지 않다.

## V. 연구결과

### 1. 복지수급 편모에 대한 다중변량분석

<표 5-1>은 복지수급 편모의 가족 배경적, 개인적, 그리고 자녀의 특성이 고려된 상태에서, 비용통적 근무스케줄로 인한 문제와 육아 스트레스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보여준다. 모델 1은 다른 관련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통적 근무스케줄로 인한 문제와 육아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모델 1에 따르면 비용통적 근무스케줄로 인한 자녀돌보기 문제는 복지수급 편모의 육아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가족 배경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비용통적 근무스케줄 문제와 육아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모델 2에 따르면 빈곤수준, 자녀 아버지와의 관계, 사회적 지원망, 탁아서비스의 이용 등과 같은 배경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비용통적 근무스케줄로 인한 자녀돌보기 문제는 육아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 가족 배경변수들 중에서는 빈곤수준과 탁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기대, 그리고 대안적 탁아서비스를 찾아야만 했던 횟수가 복지수급 편모의 육아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련을 보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가장 빈곤한 계층의 편모(0.99%의 소득대 빈곤비율에 속하는 집단)는 빈곤선의 2배이상의 소득(200%이상의 소득대 빈곤비율에 속하는 집단)을 가진 편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육아 스트레스를 보였다( $b=0.76, p<.01$ ). 또한 탁아서비스가 필요할 때 친구나 친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육아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 $b=-0.50, p<.10$ ). 또한 탁아서비스가 불안정하여 계획되었던 탁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서비스를 찾아야만 했던 횟수가 증가하는 것은 빈곤 편모의 육아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b=0.49, p<.05$ ).

모델 3은 편모 개인의 특성이 추가로 통제된 상태에서도 비용통적 근무스케줄로 인한 문제와 육아스트레스 간에는 여전히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편모 개인의 특성 중에서는 전통적 성역할 지향성이 육아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편모가 전통적 성역할 지향성을 가질수록 더 높은 육아 스트레스 수준을 보고 하였다.

편모 개인의 특성변수를 통제하는 것은 가족 배경변수들의 육아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켰다. 모델 2와 비교해보면, 빈곤수준이 육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감소하였으며( $b$  값이 0.76에서 0.59로 감소함), 탁아서비스 관련 사회적 지원에 대한 기대변수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변화하였다.

최종모델인 모델 4를 보면, 자녀특성 변수까지 모두 다 고려한 상태에서도 비용통적 근무스케줄로 인한 자녀돌보기 문제는 편모의 육아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킴을 알 수 있다( $b=0.50, p<.01$ ). 자녀 특성변수들 중에서는 자녀의 건강상태와 기질적 어려움이 편모의 육아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련을 맺었다. 자녀의 건강을 최적이하 로 분류한 어머니들의 경우 최적이하 라고 분류한 어머니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육아 스트레스를 보였으며( $b=0.62, p<.01$ ), 자녀가 기질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아이라고 생각할수록 높은 수준의 육아 스트레스를 보고하였다

(b=0.27, p<.01).

<표 5-1> 비용통적 근무스케줄로 인한 문제와 육아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비용통적 근무스케줄로 인한 문제				
자녀돌보기 문제	0.56***	0.51***	0.51***	0.50***
다른 가족 돌보기 문제	-0.01	0.01	-0.01	0.01
가족배경요인				
소득 대 빈곤비율 [+200%]				
0-99%		0.76***	0.59***	0.56**
100-199%		0.26	0.21	0.19
자녀아버지와의 관계 [동거]				
방문관계		0.21	0.21	0.18
무관계		0.22	0.27	0.25
택아서비스 이용				
택아서비스 이용시간		0.09	0.01	- 0.27
대안적 택아서비스가 필요했던 횟수		0.49**	0.43*	0.44*
사회적 지원에 대한 기대				
재정적 도움		-0.18	-0.01	-0.01
택아관련 도움		-0.50*	-0.47	-0.44
주거관련 도움		-0.42	-0.27	-0.28
자녀수		0.01	0.01	0.01
어머니 특성				
인종 [비히스패닉계 백인]				
비히스패닉계 흑인			0.38	0.26
기타			0.25	0.21
연령 [19세 이하]				
20-29			0.16	0.12
30 +			-0.18	-0.19
교육 [12 년 이상]				
0-8 년			0.20	0.14
9-11년			0.34*	0.24
전통적 성역할 지향			0.15***	0.14***
자녀 특성				
성별 [여아]				
남아				-0.00
건강상태 [최적]				
최적이하				0.62***
기질적 어려움				0.27***

1. Fragile Families and Child Wellbeing Study의 기초조사자료와 1차 추가 조사자료에 근거한 통계치임

2. 표 안의 수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임

3. 준거집단은 [bracket]안에 있는 집단임

\*P<.10, \*\*P<.05, \*\*\*P<.01

<표 5-2> 복지수급 경험이 없는 편모의 경우 : 비용통적 근무스케줄로 인한 문제와 육아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비용통적 근무스케줄로 인한 문제				
자녀돌보기 문제	0.15	0.16	0.16	0.15
다른 가족 돌보기 문제	0.13	0.01	0.01	0.01
가족배경요인				
소득 대 빈곤비율 [+200%]				
0-99%		0.41*	0.01	0.01
100-199%		0.35	0.10	0.01
자녀아버지와의 관계 [동거]				
방문관계		0.46**	0.28	0.32
무관계		0.81***	0.68***	0.74***
택아서비스 이용				
택아서비스 이용시간		0.01	0.18	0.14
대안적 택아서비스가 필요했던 횟수		0.01	-0.01	-0.01
사회적 지원에 대한 기대				
재정적 도움		-0.60*	-0.50	-0.47
택아관련 도움		-0.17	-0.01	-0.01
주거관련 도움		-0.01	0.24	0.28
자녀수		0.02	0.01	0.01
어머니 특성				
인종 [비히스패닉계 백인]				
비히스패닉계 흑인			0.75***	0.67***
기타			0.26	0.21
연령 [19세 이하]				
20-29			0.18	0.15
30 +			-0.21	-0.20
교육 [12 년 이상]				
0-8 년			0.46	0.33
9-11년			0.63***	0.54**
전통적 성역할 지향			0.04	0.03
자녀 특성				
성별 [여아]				
남아				0.12
건강상태 [최적]				
최적이하				0.47*
기질적 어려움				0.45***

1. Fragile Families and Child Wellbeing Study의 기초조사자료와 1차 추가 조사자료에 근거한 통계치임

2. 표 안의 수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임

3. 준거집단은 [bracket]안에 있는 집단임

\*P<.10, \*\*P<.05, \*\*\*P<.01

## 2. 복지수급 경험이 없는 편모와의 비교분석

<표 5-2>는 복지수급 경험이 없는 편모를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기본 모델인 모델 1을 보면, 복지수급 편모를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결과와는 달리, 복지수급 경험이 없는 편모의 경우는 비응통적 근무스케줄로 인한 자녀돌보기 관련 문제가 육아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배경변수를 추가로 분석에 포함시킨 모델 2를 보면 복지수급 경험이 없는 편모의 경우에는 편모의 자녀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들의 육아스트레스와 강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하는 편모에 비해 자녀의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편모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육아 스트레스를 보고하였으며( $b=0.81, p<.01$ ), 마찬가지로 방문하는 관계의 편모도 동거편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육아 스트레스를 보고하였다( $b=0.46, p<.05$ ). 그 밖에도 가족 배경변수들 중에서 빈곤수준과 재정적 도움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육아 스트레스와 관련되었다.

편모 개인의 특성변수를 추가로 포함한 모델 3을 보면, 복지수급 경험이 없는 편모에게는 인종과 교육수준이 육아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지수급 편모에게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던 전통적 성역할 지향성 변수가 수급 경험이 없는 편모의 육아 스트레스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표 5-1>의 모델 3과 비교해보라). 특히 편모 개인의 특성변수가 통제되면, 가족 배경변수들 중 중요변수인, 빈곤수준과 재정적 도움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육아 스트레스와 더 이상 유의미한 관련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종 모델인 모델 4를 보면, 가족 배경변수, 편모 개인변수, 자녀의 특성변수를 모두 고려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근무시간의 비응통성으로 인한 자녀돌보기 문제는 복지수급 경험이 없는 편모의 육아 스트레스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 특성변수들 중에서는 자녀건강과 기질적 어려움이 육아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련을 보여 복지수급 편모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최종모델에서는 편모의 자녀아버지와의 관계, 인종, 교육수준, 자녀의 건강 및 기질적 어려움이 육아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련을 맺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VI. 논의 및 함의

### 1. 논의

본 연구는 아주 어린 자녀(1세)를 둔 복지수급 편모들의 비응통적 근무스케줄로 인한 문제와 육아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복지수급 편모를 수급 경험이 없는 편모와 비교함으로써 복지개혁이후 복지수급 편모들이 처한 부모역할 수행상의 어려움의 특징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모든 분석에 있어서 본 연구는 가족배경변수,

편모 개인적 특성변수, 그리고 자녀특성변수 등과 같은 광범위한 배경변수들을 고려하였다.

### 복지수급 편모들의 육아 스트레스

전체적으로 비용통적 근무스케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문제들 중에서 자녀돌보기와 관련된 문제들은 복지수급 편모들의 육아 스트레스를 크게 증가시켰으나 수급경험이 없는 편모들의 육아 스트레스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육아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취업한 부모들에게 융통적 근무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해왔지만, 근무시간의 비용통성이 육아와 관련된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 경험적 연구들은 주로 중산층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Barnett, 1997; Barnett & Marshall, 1991; Galambos & Walters, 1992; Gottfried et al., 2002; Lennon, 1994; Levine & Pittinsky, 1997 참조).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빈곤 편모는 취업을 통한 이익이 그들이 가정에 머무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비슷하기만 하다면 취업을 더욱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Edin & Lein, 1997; Monroe & Tiller, 2001; Olicker, 1995; Seccombe, 1999). 이상의 연구들에 따르면 아주 어린 자녀를 둔 빈곤 편모들의 경우 취업보다 복지 수급을 선택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그들에게 이용가능한 직업들의 열악한 근로조건들-특히 적절한 부모역할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특별급여의 결여-때문이라고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용통적 근무스케줄 또한 저임금 취업의 열악한 근로조건 중의 하나로서 어린 자녀를 둔 편모들이 적절한 부모역할수행을 크게 방해하며 이는 취업률과 취업지속성을 감소시키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강제적 취업규정 하에 있는 편모들의 경우 비용통적 근무스케줄로 인한 역할갈등의 정도가 육아 스트레스와 상당히 관련되는데, 이는 강제취업으로부터의 요구가 편모의 가족역할 수행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복지제도 하에서는 근무조건이 복지수급 어머니들의 부모역할 수행을 크게 방해한다고 해도 취업을 중단하기가 어렵다. 취업규정의 이러한 강제적인 성격이 부모역할수행에 있어서 이들 편모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가족배경변수들 중에는 빈곤수준과 탁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횟수가 육아 관련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첫째, 저소득층 편모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되는 바와 같이(Campbell & Moen, 1992; Taylor, 1997), 본 연구에서도 빈곤수준이 복지수급 편모의 육아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 빈곤의 비율이 100%이하인 편모의 경우 200%이상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육아 스트레스를 보였다. 선행연구들(Baranowski, 1999; Ohlson, 2001; Riley & Glass, 200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탁아서비스 이용 상의 불안정성은 빈곤편모의 부모역할 수행에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 자녀를 가진 편모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탁아 문제-특히 이로 인해 대안적 탁아 서비스를 찾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육아 스

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편모의 개인적 특성 변수들 중에서는 성역할 지향성이 육아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성역할 지향성을 갖는 것은 빈곤한 편모의 부모역할 수행 스트레스를 크게 증가시켰는데, 이는 좋은 어머니가 된다는 것에 대한 편모들의 신념이 그들의 부모역할 수행 및 그것과 관련된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Hock & DeMeis, 1994; Lundberg, 1996; Pavalko & Woodbury, 2000). 본 연구의 연구결과와 관련하여서, 공공부조 수급의 경험이 있는 편모들을 대상으로 한 Taylor(2000)의 연구에서는 성역할 정체감은 복지수급 여부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 Taylor는 성역할 정체감은 복지를 수급하는 것과 취업노동을 택하는 것 간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며, 그 영향력은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경우에 더욱 크다고 보고하였다.

자녀의 건강과 자녀의 기질적 특성도 역시 편모의 육아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녀의 특성이 일상적 부모역할 수행이 조직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의 하나라는 결과를 보여준 선행연구들(Belsky, 1984; Bornstein, 2002; Crnic & Low, 2002; Jackson, 2000; McBride, Schoppe, & Rane, 2002; Mulsow et al., 2002)과 일치한다.

### 복지수급 경험이 없는 편모와의 비교

이상의 결과를 복지수급 경험이 없는 편모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우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비용통적 근무스케줄로 인한 자녀돌보기 문제가 복지수급 경험이 없는 편모의 육아스트레스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족배경 요인들 중에서는 자녀 아버지와의 관계만이 복지수급 경험이 없는 편모의 육아 스트레스를 크게 증가시켰다. 복지수급의 경험이 없는 편모의 경우 자녀의 아버지와 동거하는 집단이 자녀 아버지와 무관계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의 육아 스트레스를 보였다. 자녀의 아버지와 관계지위 변수와 육아 스트레스간의 이러한 상관관계는 복지수급의 경험이 전혀 없는 편모들에게만 나타났는데, 이는 동거라는 것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편모들의 육아에 더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편모의 자녀 아버지와 관계유형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동거관계의 질과 동거커플들 간의 잠재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지적해왔다(Brown, 2000; Brown & Booth, 1996; Osborne, 2002; Seltzer, 2000; Smock, 2000; Vosler & Robertson, 1998).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복지수급 경험 등에 따라 동거관계의 질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중산층의 편모들은 저소득층 편모들에 비해, 그들의 파트너로부터 부모역할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재정적 일상적 지원을 얻을 수 있을 수 있다.

편모의 개인적 특성변수 중에서 인종과 성역할지향성이 몇 가지 논쟁점들을 제시한다. 복지를 수급하는 어머니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와는 달리(예를 들어 Howard, 2000;

Ohlson, 2000), 본 연구에서는 단지 복지수급의 경험이 없는 편모의 육아 스트레스에만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복지수급의 경험이 없는 흑인 편모는 백인 편모에 비해 주목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육아 스트레스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본 연구는 어머니의 교육수준 역시 공공 부조 수급의 경험이 없는 편모의 부모역할 수행 스트레스에만 관련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부모역할 수행 스트레스 수준을 예측함에 있어서 인종이나 교육과 같은 주요 사회 경제적, 인구학적 요인들의 중요성이 어머니의 복지수급 경험 여부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성역할지향성은 복지수급 편모들의 육아 스트레스에만 관련되었다. 전통적 성역할 지향을 보이는 것은 복지수급 편모의 육아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으나 수급경험이 없는 편모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특히 복지를 수급하는 어머니들의 취업, 복지수급, 그리고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에 성역할지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Taylor, 2000; Wertheimer, Long, & Vandivere, 2001)의 결과와 일치한다.

## 2.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분야에 대한 함의

### 사회복지 정책

비록 몇몇 연구들이 빈곤 편모의 정신건강 문제가 복지개혁이후 더욱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지만(Aaronson & Hartmann, 1996; Jayakody & Stauffer, 2000), 빈곤 편모의 정신건강문제에 중요한 지표로서 육아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춘 경험적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없다. Ohlson(2001)은 지금 현재 어린 자녀를 둔 빈곤 편모의 구체적인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한 정보가 복지개혁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향후 복지정책의 개선점들을 개발시키는 복지정책 입안가에게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근무스케줄의 비유동성으로 인한 문제가 복지수급 편모의 육아 스트레스를 크게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복지수급 편모들은 현재 취업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일-가정 역할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감소되며, 이것이 이 집단의 어머니들의 무기력감과 육아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근무 스케줄의 비유동성은 복지수급 편모들의 무기력감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육아 스트레스가 전반적인 정신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Windle & Dumenci, 1997), 복지수급 편모의 부모역할 수행 관련 문제들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빈곤 편모들이 그들의 삶에 더 큰 통제감을 갖도록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불안정한 탁아서비스도 복지수급 편모의 육아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불안정한 탁아서비스는 복지를 수급하는 편모들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저임금 노동의 열악한 특성과 타아를 위한 대안적 자원의 부재를 고려할 때, 아주 어린 자녀를 둔 빈곤한 편모들에게 이용가능하고 안정적인 탁아서비스가 크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 사회복지 실천분야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어머니의 육아관련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포함하여 정신건강상의 다양한 증상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Olson & Banyard, 1993), 자녀 및 다른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잠재적으로 감소시킨다고 한다(Crnic & Low, 2002).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육아 관련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어머니들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요구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는 육아 스트레스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모들의 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육아 및 가족원 돌보기 능력은 노동조건상의 특성의 영향을 받는데, 비유동적인 근무조건을 가진 편모는 육아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취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주 어린 자녀를 둔 빈곤 편모들의 육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들은, 보다 나은 직업을 얻기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들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는 자녀의 기질적 어려움이 편모의 육아 스트레스 수준과 상당히 큰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어린 자녀를 둔 편모의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는 서비스 프로그램들은 자녀의 기질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구체적인 기술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취업과 육아 스트레스간의 인과적 과정들을 유추하기에 많은 제한점을 가진다. 사실상 취업과 육아 스트레스와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에 포함된 몇몇 요인들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간의 관계의 방향들은 상당히 복잡적이기 쉽다. 특히 주관적 경험이나 육아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 등을 연구할 때에는 이러한 복잡성을 고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Ostberg & Hagekull, 2000). 따라서 종단연구의 자료를 이용하면 육아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인과적 과정들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개념적 모델은 육아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 요인들을 구조화하는 예비적인 틀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며, 복지개혁 이후의 아주 어린 자녀를 둔 편모의 육아 스트레스에 대한 향후연구들을 위한 초기 기초연구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비록 본 연구가 가족배경 변수 및 편모와 자녀의 특성변수 등 광범위한 통제변수들을 고려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취업한 편모와 취업하지 않은 편모들 간의 기존의 차이들로 인한 선택편향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잠재적인 선택편향이 취업

과 육아 관련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설명하였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이 개별가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함 - 특히 1996년 복지개혁이후 - 에 있어서 광역환경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중요한 광역환경적 특성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실업률, 복지급여의 범위, 구체적인 TANF 제재정책들과 같은 광역환경적 특성들은 취업과 심리적 복지간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들일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장애변수, 부모의 이민지위, 가정폭력 등과 같은 변수들도 육아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다. 이상과 같은 변수들의 잠재적 영향력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Aaronson, S., & Hartmann, H. (1996). Reform, not rhetoric: A critique of welfare policy and charting of new directions. *American Orthopsychiatry*, 66(4), 583-598.
- Bank, L., Forgatch, M. S., Patterson, G. R., & Fetrow, R.A. (1993). Parenting practices of single mothers: Mediators of negative contextual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2), 371-384.
- Baranowski, K.L. (1999). Health perceptions and barriers to health as defined by women marginalized by socioeconomic statu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 Barnett, R.C. (1997). Gender, employ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Historical and life course perspectives. In Lachman, M. E. & James, J. B. (Eds.), Multiple paths of midlife development (pp. 325-343).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arnett, R.C., & Marshall, N.L.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work and family roles and their subjective well-be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Frankenhaeuser, M., Lundberg, U., & Chesney, M. (Eds.) Women, work, and health: Stress and opportunities (pp.111-138). Plenum Press: New York and London.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 Eggebeen, D. (1991). Early and extensive maternal employment and young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ren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83-1110.
- Bird, C.E. (1997). Gender differences in the social and economic burdens of parent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4), 809-823.
- Blank, S.W., & Blum, B.B. (1997). A brief history of work expectations for welfare mothers.

- The Future of Children, 7(1), 28-38.
- Bloom, D., Farrell, M., & Fink, B. (2002). Welfare time limits: State policies, implementation, and effects on families. New York, NY: Manpower Development Research Corporation.
- Bluestone, C., & Tamis-Lemonda, C. S. (1999). Correlates of parenting styles in predominantly working and middle class African American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4), 881-893.
- Bornstein, M.H. (2002). Parenting infants. In Bornstein, M.H.(ed.), Handbook of Parenting, 1 (2<sup>nd</sup>ed. pp.3-44).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Brauner, S., & Loprest, P. (1999)a. Where are they now? What states' studies of people who left welfare tell us? (Working Paper Series, A-32).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Broughton, C.E. (2001). Reforming poor women: The cultural politics and practices of welfare refor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 Brown, S.L. (2000). The effect of union type on psychological well-being: Depression among cohabitators versus married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 241-255.
- Brown, S.L., & Booth, A.(1996). Cohabitation versus marriage: A comparison of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3), 668-678.
- Campbell, M.L. & Moen, P. (1992). Job-family role strain among employed single mothers of preschoolers. Family Relations, 41, 205-211.
- Cancian, M., & Meyer, D.R. (2000). Work after welfare: Women's work effort, occupation, and economic well-being. Social Work Research, 24(2), 69-86.
- Chase-Lansdale, P. L., & Duncan, G. J. (2001). Lessons learned. In Duncan, G. J. & Chase-Lansdale, L. (Eds.) For better and for worse: Welfare reform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nd families (pp. 307-322). Russell Sage Foundation.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Jr., Lorenz, F.O., Simons, R.L., & Whitbeck, L.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 541.
- Connolly, D. R. (2000). Homeless mothers: Face to face with women and poverty. Minneapoli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Copeland, D. B.(1999). Maternal competence and health status in early parenth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Louisiana State University Medical Center.
- Corcoran, M., Danziger, S.K., Kalil, A., & Seefeldt, K.S. (2000). How welfare reform is affecting women's work.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241-269.
- Crníc, K., & Low, C. (2002).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Bornstein, M.H.(ed.),

- Handbook of parenting 5 (2<sup>nd</sup> ed. pp. 243-267).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Dinitto, D.M. (2000). Social Welfare: Politics and public policy. (5<sup>th</sup> ed.) Allyn and Bacon.
- Edin, K., & Lein, L.(1997). Making ends meet: How single mothers survive welfare and low-wage work. Russell Sage Foundation.
- Galambos, N.L., & Walters, B.J.(1992). Work hours, schedule inflexibility, and stress in dual-earner spouse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4, 290-302.
- Gilbert, N., & Terrell, P. (1998). Dimension of Social Work Policy. 4<sup>th</sup> (ed.). Allen and Bacon.
- Goodwin, J.L. (1995). Employable mothers and suitable work: A reevaluation of welfare and wage earning for women in the twentieth-century United States. Journal of Social History, 29, 253-274.
- Gottfried, A. E., Gottfried, A. W., Bathurst, K. (2002). Maternal and dual-earner employment status and parenting. In Bornstein, M.H.(ed.), Handbook of parenting 2 (2<sup>nd</sup> ed. pp.207-229).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Hastings-storer, J.M.(1991). Parenting stress in rural, low-income African-American mothers of young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 Hock, E. & DeMeis, D. K. (1994). Depression in mothers of infants: The role of maternal employ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6(2), 285-291.
- Hoffman, L. W., & Youngblade L. M. (1999). Mothers at work: Effects on children's well-be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ward, E. C. (2000). Employment,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among low-income mothers: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Illinois.
- Jackson, A.P. (1998).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parenting for low-income, single, black mothers. Social Service Review, 72(3), 365-379.
- Jackson, A.P. (2000). Maternal self-efficacy and children's influence on stress and parenting among single black mothers in poverty. Journal of Family Issues, 21(1), 3-16.
- Jackson, A.P., Brooks-Gunn, J., Huang, C., & Glassman, M.(2000). Single mothers in low-wage jobs: Financial strain, parenting, and preschoolers' outcomes. Child Development, 71(5), 1409-1423.
- Jayakody, R., & Stauffer, D. (2000).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single mothers: Implications for work and welfare reform. Journal of Social Issues, 56 (4), 617-634.
- Kalil, A., Dunifon, R.E., & Danziger, S.K. (2001). Does maternal employment mandated by

- welfare reform affect children's behavior? In Duncan, G. J. & Chase-Lansdale, L. (Eds.) For better and for worse: Welfare reform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nd families (pp.154-178). Russell Sage Foundation.
- Klebanov, P.K., Brooks-Gunn, J., & Duncan, G.J. (1994). Does neighborhood and family poverty affect mothers' parenting, mental health,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2), 441-456.
- Lennon, M. C. (1994). Women, work, and well-being: The importance of work condition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Sep.), 235-247.
- Levine, J. A., & Pittinsky, T. L. (1997). Working fathers: New strategies for balancing work and family. New York: Harcourt, Brace.
- Lundberg, U. (1996). Influence of paid and unpaid work on psycho-physiological stress: Responses of men and wome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2), 117-130.
- Mathiesen, K.S., Tambs, K., & Dalgard, O.S. (1999). The influence of social class, strain and social support on symptoms anxiety and depression in mothers of toddler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4, 61-72.
- McBride, B.A., Schoppe, S.J., & Rane, T.R. (2002). Child characteristics, parenting stress, and parental involvement: Fathers versus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Nov.), 998-1011.
- Mink, G. (1998). Welfare's End. Cornell University Press.
- Mirowsky, J. (1999). Analyzing associations between mental health and social circumstances. In Carol S. A., & Phelan, J. C. (Eds.)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mental health (pp.105-123). Kluwer Academic /Plenum Publishers.
- Mockler, S.E. (1990). Parenting stress of single mother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York University, Canada.
- Moffit, R., & Roff, J. (2000). The diversity of welfare leaver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onroe, P.A., & Tiller, V. V. (2001). Commitment to work among welfare-reliant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Aug.), 816-828.
- Mulso, M., Caldera, Y. M., Reifman, A., & Huston, A. C. (2002). Multilevel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stres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Nov. 2002), 944-956.
- Ohlson, Cheryl. (2001).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life events,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s among mothers of preschoolers within the context of welfare reform and childhood disabi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Oliker, S. J. (1995). Work commitment and constraint among mothers on workfare.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24(2), 165-194.
- Oliker, S. J. (2002). Challenges for studying care after AFDC. In Gerstel, N., Clawson, D., & Zussman, R. (Eds.) Families at work: Expanding the boundaries. (pp. 289-301) Nashvill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 Olson, S.L. & Banyard, V. (1993). Stop the world so I can get off for a while: Sources of daily stress in the lives of low-income single mothers of young children. Family Relations, 42, 50-56.
- Osborne, C. (2002). A new look at unmarried families: Diversity in human capital, attitudes, and relationship quality (Working Paper 02-01-FF). Columbia: Center for Research on Child Wellbeing.
- Ostberg, M., & Hagekull, B. (2000). A structural modeling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of parenting stres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4), 615-625.
- Ostberg, M., Hagekull, B., & Wettergren, S. (1997). A measure of parental stress in mothers with small children: Dimensionality, stability and validity.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38, 199-208.
- Pavalko, E.A., & Woodbury, S. (2000). Social roles as process: Caregiving careers and women's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 91-105.
- Polit, D.F., Widom, R., Edin, K., Bowie, S., London, A. S., Scott, E. K., & Valenzuela, A. (2001). Is work enough?: The experiences of current and former welfare mothers who work (The Project on Devolution and Urban Change). New York, NY: Manpower Development Research Corporation.
- Raver, C.C. (2001). Does work have an impact on depressive symptoms and parenting among low-income mothers of Head Start preschoolers? Chicago: Joint Center for Poverty Research.
- Riley, L.A., & Glass, J.L. (2002). 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 Infant care preference and use among employed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Feb.), 2-15.
- Rogers, S.J., & White, L.K. (1998). Satisfaction with parenting: The role of marital happiness, family structure, and parents'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2), 293-308.
- Scott, E.K., Edin, K., London, A.S., & Mazelis, J.M. (2001). My children come first: Welfare-reliant women's post-TANF views of work-family trade-offs and marriage. In Duncan, G. J., & Chase-Lansdale, P. L. (Eds.) For better and for worse: welfare

- reform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nd families (pp. 132-153). Russell Sage Foundation.
- Secombe, K. (1999). So you think I drive a Cadillac? : Welfare recipients' perspectives on the system and its reform. Allyn and Bacon.
- Seltzer, J. A. (1991). Relationships between fathers and children who live apa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1), 79-101.
- Smith, J.R., Brooks-Gunn, J., Kohen, D., & McCarton, C. (2001). Transitions on and off AFDC: Implications for parenting and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2(5), 1512-1534.
- Smock, P.J. (2000). Cohabitation in the United States: An appraisal of research themes, findings, and implic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1-20.
- Taylor, L.C. (1997).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mothers' mental health and parenting: implications for child socialization and welfare refor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rginia.
- Taylor, M. H.(2000). The potential impact of gender role socialization on welfare policy formation.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27(3), 135-152.
- Vosler, N.R., & Robertson, J.G. (1998). Nonmarital co-parenting: Knowledge building for practice.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79(2), 149-159.
- Voydanoff, P. (2002). Linkages between the work-family interface and work, family, and individual outcomes. Journal of Family Issues, 23(1), 138-164.
- Voydanoff, P., & Donnelly, B.W. (1998). Parent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s predictors of parental well-being and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2), 344-355.
- Wertheimer, R., Long, M., & Vandivere, S.(2001). Welfare recipients' attitudes toward welfare, nonmarital childbearing, and work: Implications for reform? (Assessing the New Federalism, B-37).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Windle, M., & Dumenci, L. (1997). Parental and occupational stress as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dual income couples: A multilevel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625-634.
- Zaslow, M., McGroder, S., Cave, G., & Mariner, C. (1999). Maternal employment and measures of children's health and development among families with some history of welfare receipt.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Work, 7, 233-259.
- Zedlewski, S.R., Alderson, D.W. (2001a) Before and after reform: How have families on welfare changed? (Assessing New Federalism, B-32).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Zedlewski, S.R., Alderson, D.W. (2001b) Do families on welfare in the Post-TANF era differ from their Pre-TANF counterparts? (Assessing the New Federalism, Discussion Paper 01-03).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